



장소연 신임감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선수단이 9일 광주 페퍼스타체육관에서 본격적인 팀 훈련을 하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소통의 리더십...강한 ‘원팀’ 바꾼다”

장소연 AI페퍼스 신임 감독 ‘팀 체질개선’ 각오

‘기본에 충실하자’ 모토 섬세한배구 접목
긍정의마인드 무장,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AI페퍼스만의 새로운 배구 문화 만들 것

“AI페퍼스만의 새로운 배구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임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감독은 9일 광주 페퍼스타 체육(영주체육관)에서 선수단 첫 훈련에 앞서 소통의 리더십으로 팀 체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슬로건을 내 건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이 하나된 진정한 원팀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강한 프로의식으로 경기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의견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단 3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스

러운 연패 기록, 이고은 트레이드 사태, 후배 괴롭힘 논란 등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휘봉을 잡은 장 감독은 “그동안 밖에서 바라본 AI페퍼스는 굼직한 배구를 하면서 그 속의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다. 섬세한 플레이가 나와야 팀의 안정감이 살아난다”며 “무엇보다 기본을 쌓는 게 중요하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선수단의 패배 의식을 깨고 승리의 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8일 선수단과 첫 미팅을 가진 장 감독은 확실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그는 “배구의 트렌드는 세월이 지나면 바뀐다. 하지만 세월이 지



장소연 AI페퍼스 감독

나도 선수들이 가지는 자세나 마음가짐, 연습에 임하는 태도, 성실함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훈련일정에 돌입한 장소연 감독의 AI페퍼스는 비시즌 동안 체력 훈련에 매진할 방침이다. 그는 “장기 레이스인 정규시즌에 들어가면 체력이 가장 중요할 요소다. 4월부터 6월까지 체력 훈련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감독은 “선수들이 3년간 보이지 않는 패배 의식이 내재된 것도 사실이다. 이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면담을 통해 선수단을 파악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변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AI페퍼스는 신생구단이다 보니 AI페퍼스만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화를 생성할지 확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다. 선수단과 함께 같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독의 목표는 성적”이라며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 있다. 한 걸음씩 기본을 잘 다지고 가겠다. ‘AI페퍼스는 이런 팀’이라는 색깔을 다른 팀에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감독은 마지막으로 “팀의 성적과는 무관하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 준 광주팬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AI페퍼스가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이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중기자

‘금빛 물살’ 광주체고 조정 “출발이 좋다”

올 첫 대회 ‘충주탄금호배’ 금3, 은1, 동1
서에서·김지선·김승현, 대회 2관왕 기염

광주체육고 조정부가 올 시즌 첫 대회인 ‘제13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광주체고는 지난 7-9일 충북 충주 탄금호국제조정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광주체고는 여자18세이하부에서 2년 연속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조정 강팀으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서에서, 김정민, 김승현(이상 2년), 김지선(1년)은 여자18세이하부 쿼드리플스컬에 출전해 6분38초17의 기록으로 충주여고(7분27초27)를 따돌리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서에서와 김지선은 여자18세이하부

경량급더블스컬(L2X)에서도 7분31초00을 기록하며 2위 예산여고(7분42초80)와 3위 장성문향고(7분48초70)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승현도 여자18세이하부 싱글스컬(1X)에서 8분00초92로 2위 김가은(호산고), 3위 안예선(서울체고)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에서, 김지선, 김승현은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박준호(1년)는 남자18세이하부 경량급싱글스컬(L1X)에서 7분43초64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준호는 남자18세이하부 경량급더블스컬(L2X)에서는 올해 첫 조정부에 입학한 강한경(1년)과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추가했다.



제13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여자18세이하부 쿼드러플스컬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광주체고 김승현, 김지선, 김정민, 서에서(왼쪽부터)가 시상식후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육철수 광주체고 교장은 “항상 타 지역 훈련장을 오가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흘린 땀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

어낸 선수들의 후원에 박수를 보낸다”며 “학교 명예를 빛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2024 한국프로골프, 11일 개막...첫 대회는 DB손보 오픈

2024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오는 11일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올해 KPGA 투어는 22개 대회가 확정됐으며, KPGA 투어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11월10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대회 총상금은 현재 181억5천

만원이 확정됐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회의 상금이 추가되면 최대 25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시즌 개막을 알리는 DB프로미 오픈은 11일부터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 클럽 울드코스에서 총상금 7억원, 우승상금 1억4천만원의 걸고 열린다.

개막전에는 작년 대회 우승자이자 다승왕인 고군택을 비롯해 작년 상금왕 박상현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고군택은 작년 대회에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한 것으로 시작으로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안비테이셔널,

신한동해오픈을 제패하며 3승을 올렸다.

올해로 투어 데뷔 20년 차가 된 박상현은 “이렇게까지 투어에서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도 “이제는 20승 이상 쌓아야 받을 수 있는 ‘영구 시드권’이 목표”라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박상현은 KPGA 투어 통산 12승을 올렸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슈퍼스트로크 협업

‘KIA 타이거즈 스페셜 에디션’ 퍼터 그립 출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글로벌 골프 브랜드인 슈퍼스트로크와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선보인다. (사진)

KIA는 9일 글로벌 퍼터 그립 브랜드인 슈퍼스트로크와의 협업을 통해 ‘KIA 타이거즈 스페셜 에디션’ 퍼터 그립을 출시했다.

KIA 타이거즈 스페셜 에디션 퍼터 그립에는 슈퍼스트로크의 대표 모델인 Tour20에 KIA 타이거즈 로고와 호걸이 캐릭터 디자인이 추가됐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퍼터 그립과 KIA 타이거즈 골프 용품 굿즈들이 포함된 스페셜 패키지도 판매된다. 해당 패키지엔 호걸이 볼마크와 네임택, 볼타월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컬래버레이션 상품과 패키지 상품의 가격은 각각 6만5천원과 12만 원이며, 온·오프라인 타이거즈 팀 스토어 및 슈퍼스트로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주홍철기자



타이거 우즈(왼쪽)와 월 플라토리스가 9일 마스터스 토너먼트 연습라운드 16번홀(파3)에서 물수제비샷으로 온그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즈 샷 보자”

마스터스, 11일 개막...우승 0순위 세계 1위 세플러

남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11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파72·7천555야드)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88회째인 마스터스는 4대 메이저 가운데 대회 역사는 가장 짧지만, 선수 대부분이 ‘최고의 메이저’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출전 선수 수도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적어 올해 대회의 경우 89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대회 2연패는 2002년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우즈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찾아 몸을 풀며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다. 우즈가 올해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하면 마스터스 24회 연속 컷 통과 기록을 세운다.

우즈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

우즈는 125/1의 우승 배당률로 전체 이 출전한 마스터스에서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다.

마스터스에서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은 우즈와 게리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드 컵스(미국)의 23회다.

미국 선수인 김시우(60/1), 임성재(80/1), 김주형(100/1), 안병훈(150/1) 순이다. 전체 순위로는 김시우 31위, 임성재 59위, 김주형 39위, 안병훈 45위다.